

“과잉규제로 생존권 위협, 승안법 철회하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종사자 500명 광화문서 시위 승강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백지화 요구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을 중심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기업들은 12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관련 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5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존폐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격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이날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존폐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격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이날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유지관리업의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 즉 대기업과 영세한 유지관리업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승강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철회를 호소했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한다. 선제적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

품을 관리주체에 제공해야 한다. 위반한 사람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에 사업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컨대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 과징금은 4800만원을 내야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벌도 규정했다.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이다.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상한선을 뒀다.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도도 신설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승강기 안전기술 개발 및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행정지도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송세준 기자 21ssj@

한전, 올 전력량계 입찰 7월초·중순쯤 나올 듯

역대급 물량 쏟아진 작년 비 다소 줄어들 전망 개별입찰·지역제한입찰 등 변수 ‘신경 써야’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이 7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월 한전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전력량계 발주 시기는 7월 초에서 중순쯤으로 관측된다. 본지의 확인 결과 한전 측에서도 “지난해 계약분의 종료시점이 오는 9월 30일이다. 만기 2달 정도를 남기고 물량을 산정하는 관례로 볼 때 7월 초·중순쯤 발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다만, 올해 전력량계 물량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발주에서 역대급 물량이 풀렸던 만큼 올해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최근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든 한전의 수익지표와 최근 부임한

김종갑 신임 사장이 영업이익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전력량계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 올해는 그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Ea타입의 경우 200만대 수준에서 발주가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번 입찰 참여 주체가 조합이 될지, 개별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의 경우 Ea타입 전력량계는 제1전력량계조합과 제2전력량계조합이 물량을 가져갔다. 반면 G타입의 경우 개별 업체들

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전쟁’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는 계속 하락해 2014년 12만원대였던 G타입 전력량계(3상) 낙찰가는 지난해 4만원대까지 폭락했다. 같은 기간 7만원 선이었던 단상 낙찰가도 4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전은 전국 8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을 위해 20% 규모의 물량을 따로 떼어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주혁신산단 등으로 이전한 제조기업들이 한전의 자체발주 감소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성훈 기자 jph@

오토닉스 신뢰성 시험센터

TUV 공인 시험소 인정

산업용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대표 박용진)의 신뢰성 시험센터가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오토닉스는 자사 신뢰성 시험센터가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전자과 적합성(EMC)과 레이프티(LVD)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인 시험소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TUV 라인란드는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다.

TUV 라인란드는 시험 환경, 시험 장비, 시험 방법, 전문 인력 보유 여부, 품질 관리 절차 등을 엄격하게 평가한 끝에 오토닉스 신뢰성 시험센터를 공인 시험소로 인정했다.

오토닉스는 이번 공인 시험소 인정으로, 향후 전자과 적합성과 레이프티 테스트 결과에 대해 북미 최고 권위의 안전 규격 기관 UL은 물론, 유럽 통합 규격 인증 CE 기관과 동일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이번 공인 시험소 인정은 전자과와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 시장에서 오토닉스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공고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TUV 라인란드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강화된 국제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뢰성 센터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4월 새롭게 완공된 오토닉스 신뢰성 센터는 ▲전자과 적합성 시험실 ▲레이프티 시험실 ▲복합 환경 시험실(예정) ▲성능 시험실 ▲X-Ray 분석실 ▲기후 시험실 등 총 12개의 시험실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제품에 대한 필드 환경 시험, 수명 시험, 신뢰성 시험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ube@

현대엘리베이터

챗봇(ChatBot) 적용 유지관리 서비스 출시

현대엘리베이터(대표 장병우)가 인공지능 ‘챗봇’(CHATBOT) 기능을 적용해 대응 시간을 최소화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전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앱)으로 승강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하면 인공지능 챗봇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해준다. 또 고장 접수→수리 기사 배치→실시간 기사 도착 안내→처리결과 안내 및 고객 확인(Happy Call)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했다”며 “다음주 최종 점검을 마치고 25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발맞춰 첨단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은 물론 전문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첨단 서비스 적용과 하반기 인력 채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의 승강기 안전 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수·배전반과 태양광 발전의 길잡이

한양전공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그린 100만호 사업 / 일반 보급사업
- 공공의무화 사업 / 지방보급사업
- RPS사업 설치시공 전문업체

조달우수 인증제품 (울드입체형 복합센서와 역률개선 기능이 구비된 내진용 수배전반)

- 스마트차기기 (기타 100A~2000A용)
- 부하전력보상장치 (기타 100A~2000A용)
- 진동 및 온도 모니터링 (동용 100A~1000A용)
- 내진용 스프링 (동용 100A~1000A용)

- 100A 이상의 온도, 진동 감시 및 스마트차기
- 안티락 스위치를 이용한 정지용 역률 개선장치
- 내진 장치(구비된 수배전반)

조달우수 인증제품 (태양광 발전 설비 전문 기업)

- 조달 우수 제품
- 주택, 건물 지원 사업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
- RPS 사업 설치 시공 전문
- 서울시 미니 태양광 설치 등록

MCSG (Metal-Clad Switchgear) 수배전반

- 내부 이식식고 시 합력가스 인진 방식
- Earthing Switch 장착
- 금속 격벽으로 분리된 독립 구조
- 시고 시 배급 범위 최소화
- KEPI 형식시험 통과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HYPES)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연계형
- 계통연계 및 DI-Grid 단독운전기능(RPS기능)
- 전압권리조정(전압)을 통한 지능형 인버터
- 전력 피크 제어 기능
- 디지털 전력 제어
- 다양한 대용량 축전지 연결을 통한 장시간 백업기능

인버터 (계통연계 및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 HYPVS)

- 광범위한 MPPT 존업 범위
- 높은 효율을 갖는 MPPT 모듈
- 낮은 출력 고조파 선률차음
- DC Ground Fault 검출 기능
- 독립운전모드 전환기능
- 3상3선, 3상4선 적용

한양전공주식회사
HANYANG ELECTRIC CO., LTD

본사: 경기도 광주시 서남면 수월리길 90-23
대표전화: 031-945-4411 Fax: 031-945-4410 Home Page: www.hyeic.co.kr
상세문의: 070-4405-0710 우편번호: 070-4405-0710